

‘2·28정신’의 보수이념적 의미론*

채 장 수**

•요 약•

과거 근대적 가치를 주도한 지역이었던 대구는 현재 한국의 보수를 대표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의 보수가 이념적으로 얼마나 보수주의적 가치에 충실한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2·28정신을 대구 보수의 보수 이념적 재정립을 위한 지표라고 규정하면서, 이것에 대한 보수이념적 의미화를 시도했다. 이에 II장에서는 ‘실체적·보편적 보수주의’로 개념화한 보수주의의 신념윤리와의 비교를 통하여, 대구 보수의 수구적 경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이후 대구의 역사적 자산인 2·28정신의 보수이념적 의미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했다.

III장에서는 전통사상의 맥락에서 2·28정신의 보수주의를 설정했다. 여기에서는 전통적 가치와의 단절로 인한 이념적 빈곤이라는 한국 보수에 각인된 역설적 상황을 지적하면서, ‘올곧음’과 ‘나아감’ 그리고 ‘민족애’를 중심으로 2·28정신과 전통사상의 연관성을 논의했다. 그리고 IV장에서는 민주주의의 맥락에서 2·28정신의 보수주의를 설정했다. 여기에서는 보수주의와 민주주의의 상호관계성에 기초하여, 일반민주주의의 실현을 주창한 2·28과 ‘보수주의적 민주주의’ 사이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에서는 국민국가 초기 한국 사회에서 근대적 가치의 실현을 선도적으로 주창한 2·28이 ‘의미 있는 역사’로서의 무게가 점차 소진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제기했다.

주제어 : 2·28민주운동, 2·28정신, 대구 보수, 보수주의, 수구주의

* 이 연구는 2023년 (재)동일문화장학재단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I. 서론

정치적 양극화-팬덤정치¹⁾가 조장하는 진영 간의 이념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조사에서도 국민이 가장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닌 보수-진보의 ‘이념 갈등’(92.6%)이다.²⁾ 그러나 내용적으로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는 얼마나 충실한 이념일까? 특히 매번 선거에서 ‘보수의 텃밭’이자 ‘보수의 심장’으로 호명되고 있는 대구의 보수는 얼마나 보수주의적일까?

가시적으로 대구는 확실히 보수적이다. 2022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보수정당 후보의 마지막 유세지가 바로 대구였을 정도로, 이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가 그러하듯이, 이를 대표하는 대구의 보수도 보수주의의 이념적 가치를 얼마나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남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60년 2·28민주운동(이하 2·28)의 지향과 가치를 포괄하는 ‘2·28 정신’을 대구 보수의 이념적 재정립을 위한 지표라고 규정하면서, 이것에 대한 보수이념적 의미화를 시도하겠다. 이를 위해서 먼저 개념적 준거로서 보수주의의 이념적 가치를 ‘실체적(substantive)·보편적(universal) 보수주의’라는 특정한 개념으로 규정하고, 이것과는 이념적으로 다소 거리가 있는 대구 보수의 예외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겠다. 이후 대구의 역사적 자산인 2·28정신에 구현된 보수주의의 다양한 가치를 중심으로, 2·28정신의 보수이념적 의미론을 구성하겠다.

이에 II장에서는 보수주의의 본원적 의미를 실체적·보편적 보수주의라는 개념으로 설정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준거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서, 대구 보수의 수구적 경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겠다. III장과 IV장에서는 각각 전통사상과 민주주의의 맥락에서, 2·28정신에 구현된 보수주의의 실체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2·28의 보수이념적 의미론’으로 구성하겠다. 결론인 V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대구 보수의 보수이념적 정상화를 위한 길라잡이가 되어야 할 2·28정신이 점차 과거의 제한적인 기억으로 화석화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제기하겠다.

1) 저널리즘적인 차원에서 ‘팬덤정치’는 ‘대다수 국민들의 민심이나 상식에 의한 정책이나 입법행위가 이루어지는 정치 행위가 아니라, 극성 지지자들의 입김과 이득만 반영되는 정파적인 정치 행위’(https://namu.wiki/w/팬덤정치, 검색일: 2023.03.20)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민주정치의 공간을 ‘부족(tribe)의 서사에 기반을 둔 정체성과 신적인 영웅들이 부딪히는 장소’로 변질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민주정치의 미덕을 침해하게 된다(임명목, “盧·文서 이재명·이준석으로... 팬덤정치 이렇게 민주정 파괴한다”, 202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8993(검색일: 2023.03.20).

2)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한국의 정치 양극화 현황과 제도적 대안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KIPA DATA BRIEF』, 통권16호, 2023.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본 연구는 최근 2·28에 대한 학술적 연구의 주제가 점차 확장하고 있는 경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다. 살펴보면, 2·28에 대한 초기 연구는 주로 이것의 정치사회적 의미에 대한 학술적인 규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실례로 김태일은 2·28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실현과 민족의 자존과 번영을 지키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이 운동의 가장 중요한 정치사적 의미를 ‘선도성’이라고 규정했다.³⁾ 또한 채장수는 주체(피지배층)와 목표(일반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기준을 통해서, 2·28의 민주주의적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했다.⁴⁾ 이외에도 대구의 지역정체성과의 연관성 속에서, 2·28의 보수적 성격과 진보적 성격에 대한 논의⁵⁾와 교과과정의 중심으로 2·28에서 4·19로 이어지는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연관성과 연속성에 대한 논의⁶⁾가 진행되었다.

이후 2·28에 대한 연구주제는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 실례로 김용호는 시론적 수준에서 2·28의 공화주의적인 의미를 제기했다.⁷⁾ 또한 <2·28 결의문>(이하 결의문)과 구호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분석이 진행되었는데, 최병덕과 채장수, 안도현은 각각 전통사상과의 연관성⁸⁾과 민주주의적 독해⁹⁾, 쉼 권리¹⁰⁾를 중심으로 결의문에 구현된 2·28의 의미를 분석했다. 이외에도 안도현·변영학은 당시 작성된 교지 등 일차적 기록물의 내용을 중심으로, 2·28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의 집단정체성을 연구했다.¹¹⁾ 그리고 정재요는 1976년 독일에서 정치교육의 일반지침으로 제시된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기초하여, 2·28의 교육적인 의미를 고찰했다.¹²⁾

-
- 3) 김태일, “4월 혁명의 출발: 2·28대구민주운동의 정치사적 의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4권 제2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3.
 - 4) 채장수, “2·28 대구민주운동의 의미론: ‘민주화’의 성격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제11권 제3호, 대한정치학회, 2004.
 - 5) 윤순갑, “2·28민주운동과 대구정체성”, 『대한정치학회보』, 제26권 제4호, 대한정치학회, 2018.
 - 6) 유명철, “2·28민주운동, 3·15 1차 마산의거와 4·11-13 2차 마산의거, 4·19혁명: 그 ‘연관성’에 대한 내용 지도의 필요성”, 『사회과교육』, 제57권 제1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18.
 - 7) 김용호, “2·28민주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 『2·28연구원 개원 기념 2·28포럼』, 2·28민주운동 기념사업회, 2019.
 - 8) 최병덕, “전통사상적 관점에서 본 2·28민주운동 결의문의 정신과 의미”, 『대구경북연구』, 제20권 1호, 대구경북연구원, 2021.
 - 9) 채장수, “‘2·28 결의문’의 민주주의적 독해”, 『대구경북연구』, 제20권 제1호, 대구경북연구원, 2021.
 - 10) 안도현, “2·28민주운동과 쉼 권리: 결의문에 담긴 ‘일요일 등교’ 거부에 대한 재해석”, 『대구경북연구』, 제20권 제1호, 대구경북연구원, 2021.
 - 11) 안도현·변영학, “2·28민주운동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의 집단정체성 연구: 2·28민주운동 직후 발행된 교우지를 중심으로”, 『대구경북연구』, 제21권 제3호, 대구경북연구원, 2022.
 - 12) 정재요, “2·28 민주운동 서사의 교육적 의미에 관한 고찰: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제30권 제1호, 대한정치학회, 2022.

II. 대구 보수의 현재성

여기에서는 2·28정신의 보수이념적 의미론을 구성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이론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 먼저 개념적 준거로서 보수주의의 이념적 ‘신념윤리’를 ‘실체적·보편적 보수주의’라는 개념으로 설정하면서, 보수주의의 본원적 의미를 확인하겠다. 이후 이것과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 보수의 태생적 조건에서 기인하는 대구 보수의 수구적 경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겠다.

이에 보수주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저항하는 넓은 범위의 태도’¹³⁾를 의미하는 보수주의는 사회적 변화의 불가피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 전통적 가치의 현재화를 지향하는 독특한 이념이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기존 권위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익숙한 것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며, 현재와 미래를 과거와 연결하여 연속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의 정치적 입장과 가치체계’¹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보수주의의 본원적 의미를 실체적·보편적 보수주의라는 개념으로 정립하겠다. 이것은 보수주의라는 이념이 내포하는 핵심적인 가치인 ‘신중함과 엘리트주의, 법치와 점진적 개혁 등의 체계적이고 정교화된 정치철학의 실체적인 가치’¹⁵⁾와 ‘균형, 조화, 중용, 포용 등의 보편적인 가치’¹⁶⁾에 기초하여 보수주의를 개념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수주의를 개념화하는 이유는 이념의 독창성(originality)은 특정 이념이 구체적인 현실과 접촉하기 이전에, 그 이념이 표방하는 실체적이고 보편적인 가치 속에 대부분 구현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베버(Max Weber)가 제시한 정치인의 자질 중에서, 대의와 올바름에 대한 신념을 추구하며 결과보다는 동기를 강조하는 ‘신념윤리’¹⁷⁾에 더욱 가까운 관점이다.

한편 이러한 보수주의는 일견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다른 수구주의(守舊主義, reactionism)와의 개념적 구분을 통해서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하게 확인된다. 양자의 이념적 차별성은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먼저 보수주의는 사회적 변화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 그러면서 실용적·절충적

13) Hayek, Friedrich August, “Why I Am Not a Conservative”, *The Constitution of Libert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0, p.397.

14) Klemperer, Klemens, “Conservatism”, *Marxism, Communism and Western Society: A Comparative Encyclopedia*, New York: Herder and Herder, vol. 2., 1972, p.164.

15) 강정인, “전환기에 선 남한의 보수주의”, 『경제와 사회』, 통권37호, 비판사회학회. 1998, pp.103-104.

16) Huntington, Samuel P., “Conservatism as an Ideolog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51 no. 2., 1957, pp.454-455.

17) 막스 베버 지음, 이상률 옮김, 『직업으로서의 정치』(E-Book), 서울: 문예출판사, 2017.

관점에서, 새로운 도전행위가 기존 질서에 가해지는 충격의 강도와 규모를 가능한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수행한다.¹⁸⁾

반면 수구주의는 기본적으로 변화 자체를 허용하려 하지 않으면서, 다만 이상향으로 설정된 과거의 특정 질서로 회귀하려는 경향성을 가진 이념이다. 이것은 ‘선악의 이분법’, ‘동질적 사회의 추구’, ‘경전과 지도자가 독점하는 진리’, ‘사회 포용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음모론’, ‘도덕적으로 우월한 과거로의 회귀’¹⁹⁾ 등의 특성을 가지면서, 이념적 스펙트럼 중에서 유일하게 ‘현상’(status quo)보다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²⁰⁾ 이처럼 ‘변화 자체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이를 ‘저지’²¹⁾하려는 이념인 보수주의와 과거 회귀적 성향을 보이는 수구주의를 동일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적절하지 않다.

이상에서 보수주의의 본원적 의미를 ‘자의식적이고 자기 주장적인 정교한 전통주의’²²⁾로서 실체적·보편적 보수주의라고 개념화했다. 이제 파생적·이차적 성격의 보수인 한국 보수의 이념적 성격을 검토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과잉 대표하는 대구 보수의 수구적 경향을 살펴보겠다.

기본적으로 한국 보수는 서구의 ‘원초적-일차적 보수주의’와 대비되는 파생성과 이차성이라는 태생적인 조건에서 그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근대의 사회경제적 토대와 정치문화적 환경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자생적인 근대화를 경험할 수 없었던 한국의 보수에 파생과 이차성이라는 특정한 성격이 각인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²³⁾

이러한 한국 보수의 ‘뿌리 없음’²⁴⁾이라는 역설은 대구 보수의 수구적 경향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재현되고 있다. 사실 보수진영 내부는 이념적으로 단일하지 않다. 한국 보수의 울타리 안에는 과거 ‘뉴라이트’(New-Right)나 최근 ‘젊은 보수’와 같은 개혁적인 흐름과 함께, 과거 회귀로의 지향성을 보이는 수구적인 흐름이 항상 병존하고 있다. 여기서 대구의 보수는 정치적으로 후자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실제로 대구지역은 ‘극우에

18) 채장수, “한국 보수진영의 위기와 보수주의의 특성”, 『정치·정보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정치정보학회, 2018, pp.53-54.

19) 폴 슈메이커 지음, 조효제 옮김, 『진보와 보수의 12가지 이념: 다원적 공공 정치를 위한 철학』, 서울: 후마니타스, 2010.

20) 레온 P. 바라다트 지음, 신복룡 외 옮김, 『현대정치사상』, 서울: 평민사, 1998, p.62.

21) Sigler, Jay A., “Introduction”, *The Conservative Tradition in American Thought*, New York: Capricorn Books, 1969, p.13.

22) C. 라이트 밀스 지음, 박노영 외 옮김, 『현대사회와 정치구조』, 파주: 돌베개, 1981, p.90.

23) 강정인, 앞의 글, p.102.

24) 한홍구, 『대한민국史』, 서울: 한겨레신문사, 2003, p.145.

휘둘리는 여당'이나 '극우의 늪에 빠져 지지율 깎아 먹는 여 지도부', '극우와 헤어질 결심 못하는 국민의힘' 등의 기사에서 지적되는 것과 같이, 최근 계속된 극우 논란으로 수세에 몰리고 있는 여권에게 지속적으로 전국 최고의 지지율을 보내고 있다.²⁵⁾

이러한 대구 보수의 수구적 경향은 정치이념의 스펙트럼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위치하는 반평등주의적-권위주의적 이념인 '극우'²⁶⁾와 연결된다. 또한 이것은 한국의 보수연대를 구성하는 집단 중에서 '법질서파'나 '시장주의파'보다 상대적으로 수구적 경향이 강한 '전통적 반공파 애국파'²⁷⁾와도 겹친다. 한편 이것은 '색깔론'²⁸⁾과도 연결되는데, 색깔론은 '선악의 이분법'과 '동질적 사회의 추구'라는 앞서 살펴본 수구주의의 특성과 상당 부분 일치하기 때문이다.

Ⅲ. 전통사상의 맥락

대구 보수는 외적 대외로는 강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지만, 내적 이념으로는 다소 빈약한 것이 사실이다. 대구 보수의 이념적 지체의 원인은 친족회와 향우회, 동창회와 같은 유사 가족관계에 집착하면서, 근대적인 사회관계 형성이 지체된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서 찾을 수도 있다. 일례로 최중희는 전반적으로 한국은 일차원적 관계의 친밀성이 강한 구조의 사회이지만, 대구지역은 더욱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즉 대구는 지역 연고의 정치권력이 연이어 배출되고 이로 인한 부분적인 수혜를 누리면서, 혈연이나 지연과 같은 일차원적 사회구조에서 근대적 시민사회로의 전환이 상대적으로 지체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지역주의를 상징하는 대구의 맞상대인 광주가 5·18을 경험하면서 친밀성 너머의 근대적 시민사회를 구축했다는 사실과 뚜렷하게 비교되는 부분이기도 하다.²⁹⁾

한편 이러한 대구 보수의 이념적인 제자리 찾기를 위하여, 본 연구는 대구의 역사적 자산인 2·28에 주목한다. 2·28정신에 구현된 보수주의의 다양한 가치를 유형별로 확인하

25) 한국갤럽의 발표(23.05.12)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율은 전국 평균 35%, 대구와 경북 52%를 기록했다.

26) 노르베르트 보비오 지음, 박순열 옮김, 『제3의 길은 가능한가: 좌파나 우파냐』, 서울: 새물결, 1998, pp.105-128.

27) 천관율, "태극기 집회의 비결 '애국의 삼각형'", 『시사IN』, 통권498호, 2017.

28) 조희연, "색깔론의 하나의 왜곡과 하나의 전제", 2002, <http://dnsm.skhu.ac.kr>(검색일: 2003.04.28).

29) 최중희, 『대구경북의 사회학: 대구경북 사람들의 마음의 습속 연구』, 파주: 오월의봄, 2020.

여, 앞서 개념적 준거로 설정한 실체적·보편적 보수주의에 부합되는 2·28정신의 보수이념적 의미론을 구성하겠다. 실제로 2·28정신은 이러한 보수주의의 이념적 가치에 부합하는 다양한 가치를 함축하고 있는데, 본 연구를 이를 두 가지 맥락으로 유형화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겠다. 그것은 먼저 전통사상의 맥락에서, 유학에 뿌리를 둔 올곧음과 나아감 그리고 보수이념의 기본적인 성향인 민족애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맥락에서, 초기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인 일반민주주의(*general democracy*)이다.

1. 유학적 근거

여기에서는 전통사상의 맥락에서 2·28정신의 보수주의론을 논의하겠다. 전통적 가치와 의 단절과 이로 인한 이념적 빈곤은 한국적 보수에 각인된 명백한 역설이다. 보수주의의 보편적인 정서가 ‘근본적인 것’으로서 역사와 전통에 대한 강한 애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적 보수가 ‘빌려온 정당성’(borrowed legitimacy)이라는 외부적 권위에 의존하여 ‘이식(移植)된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은 오히려 역사와 전통 및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일정한 자기부정을 수반했기 때문이다.³⁰⁾ 이와 관련하여 전재호는 ‘반동성’을 ‘서구의 근대성이 지닌 진보성과 혁명성, 합리성 및 민주성의 거세’라고 정의하면서, 박정희를 ‘반동적 근대주의자’로 규정하기도 했다.³¹⁾

그러나 특정한 체계를 가진 정치이념으로서 보수주의는 일상의 관습적인 상태의 변화를 선호하지 않는 본능적인 기질 혹은 심리적인 태도와 같은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는 근원적인 원칙과 지향, 이를테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모종의 일반적인 합의’³²⁾에 기반하고 있다. 한편 2·28정신은 한국의 보수가 외부에서 이식된 ‘압축적 근대화’³³⁾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소실했던 전통사상 맥락의 다양한 보수주의적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전통사상의 핵심은 유학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선 세대들의 총화된 지혜’³⁴⁾인 전통사상은 우리의 고유한 사유체계와 자연환경 및 역사적 경험 사이의 변주를

30) 채장수, 2018, 앞의 글, pp.47-48.

31) 전재호, 『반동적 근대주의자 박정희』, 서울: 책세상, 2006, pp.14-16.

32) 테렌스 볼 외 지음, 정승현 외 옮김, 『현대 정치사상의 파노라마』, 파주: 아카넷, 2022, p.180.

33) 압축적 근대화는 선발주자를 따라잡기 위하여 ‘후·후발(late-late) 산업화’ 전략을 압축적이고 급속하게 추진하는 경로를 밟게 되는데, 이렇게 외형적인 경제성장에 사회적 역량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구성원의 의식과 관계의 근대화를 통한 시민의식의 성장이나 민주적 인간관계의 정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한홍구, 앞의 책, pp.23-24).

34) Huntington, op.cit., p.456.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외부에서 유입되는 다양한 문물을 포함하고 있기에 매우 폭넓은 외연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확고한 기반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전통사상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로 유학이다.³⁵⁾ 이처럼 유학은 서구적 근대성에 대응하는 조선의 보수적 이념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것은 서구의 근대성이 최초로 유입되면서 형성된 한국 사회의 원조 보수세력의 이데올로기였으며, 그런 의미에서 당시 유학은 조선의 지배이념으로서 그 자체가 정통의 대변자라고 볼 수 있다.³⁶⁾

이제 2·28정신과 전통사상의 연관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병덕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다. 그는 사회운동은 역사적·사상적 연속성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규정하면서, 전통사상의 맥락에서 2·28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³⁷⁾ 이에 따르면, 결의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전통사상의 핵심적 가치는 ‘올곧음’과 ‘나아감’이다.

첫째, 정의(正義)를 의미하는 올곧음은 전통으로 명분을 강조하고 의리의 실천을 중시하는 선비정신의 핵심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³⁸⁾ 즉 이것은 ‘천리(天理)에 기반한 보편성의 규범적 원리에 의해 인간의 올바른 도리를 인식하고 동시에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사회비판의식을 가지면서 구체적 현실에서 마땅함을 실현하는 의리(義理) 사상’³⁹⁾의 실천이다.

이에 2·28은 사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면서 대의명분을 실천하는 올곧음을 표출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것은 결의문의 “정의에 배반되는 불의를 처부수기 위해서는 이 목숨이 다 할때까지 투쟁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백이며, 이러한 행위는 정의감에 입각한 이성의 호소”라는 내용과, 2·28의 핵심 주역의 “정의와 진리만 배워온 젊은 지성들은 정의에 배치되는 불의를 직시했을 때 무조건 아부굴종하는 지성을 싫어했던 것이며, 여기에 불만을 채고 젊은이들은 역사적 과제의 해결에 헌신 참여하려는 사회적·행동적 지성이 강렬하게 움직였던 것”⁴⁰⁾이라는 평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나아감은 정치적·사회적 폐단이 누적되었을 때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공동체의 정신과 문화를 일신하려는 ‘수시변통(隨時變通)의 개혁’을 추구하는 경장(更張) 사상⁴¹⁾으

35) 금장태, 『유학 사상과 유교 문화』,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1995, p.116.

36) 최종욱, “괴델의 시대-과연 한국에 보수주의는 있는가”, 최종욱 외 저, 『보수주의자들』, 서울: 삼인, 1997, pp.36-37.

37) 최병덕, 앞의 글, p.11.

38) 경북정체성포럼, 『경북의 혼, 한국정신의 창: 총론편』, 경상북도·한국국학진흥원, 2014, pp.47-78.

39) 오석원, 『한국 도학파의 의리사상』,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p.26.

40) 이대우, “來日을 위한 鬪爭”, 2·28민주의거 40주년 특별기념사업회 편, 『2·28민주운동사-Ⅱ(자료편)』, 2000, p.228.

41) 이상익, 『유가 사회철학 연구』, 서울: 심산출판사, 2001, p.221.

로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하의 공론(公論)을 주도하여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는 창신 정신을 의미한다.⁴²⁾ 이처럼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내부 혁신을 바탕으로 이질적인 요소와 다양성을 포용하면서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여 선도적으로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을 뜻하는 나아감은 ‘인간의 창조’,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흩어져 존재하는 요소들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새로운 쓰임새를 갖추도록 하는 것⁴³⁾이라고 그 의미를 규정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의 부당한 현실을 비판하고 근대사회에 부합하는 시민적 권리를 주장한 2·28은 ‘모두가 옳다고 인정하는 논의로서 국가 유지의 근간’으로 규정할 수 있는 공론의 형성을 통한 정치참여의 명분을 확보하여,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잘못된 관행과 법, 제도를 고쳐서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경장의 의미를 가진 나아감을 표출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⁴⁴⁾ 이것은 결의문에 나타난 “근세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야만적이고 폭압적인 일이 그 어디 그 어느 역사책 속에 끼어 있었던가?”라는 시대 인식과 함께, “백만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라는 정당한 권리에 대한 집단적 저항의 호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학원을 정치도구화하지 말라!’나 ‘학원에 자유를 달라!’, ‘학생을 정치도구화하지 말라!’, ‘일요등교를 해명하라!’ 등 당시 학생들의 공론적 권리를 표현한 구호를 통해서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2. 민족애

올곧음 및 나아감과 함께, ‘민족애’는 전통사상의 맥락에서 추출할 수 있는 2·28정신의 주요한 보수주의적 가치이다. 민족이 객관적인 개념(혈연이나 지연, 언어, 종교, 정치, 경제 및 역사와 같은 객관적·사실적 요소 중심의 접근)이든, 주관적인 개념(민족정신이나 민족감과 같은 주관적·심리적 요소 중심의 접근)이든, 아니면 두 요소 사이 불가분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절충적인 개념이든,⁴⁵⁾ 이것은 근대 보수주의와 필연적으로 접합된다. ‘신(神)에서부터 하찮은 벌레에 이르는 존재의 거대한 사슬(a great chain of being)’로서 유기체적 공동체의 우선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공동체의 전통적 지혜와 규범에 기초하여 사회관계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⁴⁶⁾하는 특징적인 이념인 보수주의와 근대의 규정적 공

42) 최병덕, 앞의 글, p.16.

43) 경북정체성포럼, 앞의 책, p.136.

44) 최병덕, 앞의 글, pp.18-19.

45) 차기벽, 『민족주의원론』, 서울: 한길사, 1990, pp.12-13.

동체인 민족은 상호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물론 근대 초기 구성원의 삶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문화 규범의 원천이자 사회적 조화를 조절하는 중앙정부로서 ‘보편적 국가’를 선호한 근대적 보수주의와 민족 단위의 독립적이고 강력한 국가의 건설을 지향한 민족주의 사이에는 갈등의 여지가 존재한다.⁴⁷⁾ 그러나 단일한 민족공동체를 기반으로 국민국가(nation state)를 형성한 한국에서는 보수주의의 일차적 덕목인 애국심과 민족애, 또한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은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었다. 이것은 “이 민족애의 조국애의 피가 끊는 학도의 외침을 들어 주려는가?”라는 결의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민족애와 조국애는 구성원들이 속한 거대한 정치공동체에 대한 정서적 애착을 기반으로, 역사적 전통의 계승·향유 및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책임 등의 보수주의의 가치⁴⁸⁾를 표현하는 사실상 동일한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다.

2·28정신에 구현된 민족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안도현·변영학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그들은 당시 발간된 교우지에 대한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 방법을 통하여, 2·28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의 집단정체성을 민족애 및 농민사랑과 순수성, 정의감, 민주성, 정치·경제적 식견, 그리고 혁신성 등 일곱 개의 요소로 정리했다. 이 중에서 민족애는 2·28과 4·19, 그리고 이후 활발한 통일운동을 추동한 핵심적인 집단정체성이라고 규정했다. 당시 2·28 참여 학생들에게 민족주의는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의 토대였으며, 민주주의보다 앞서는 일차적 가치였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 학생들이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와 독재정치에 저항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민족성을 폄훼했기 때문이었다.⁴⁹⁾

민족애에 대한 2·28의 시각은 결의문의 “우리는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눈물을 많이 흘릴 학도요, 조국을 괴뢰가 짓밟으려 하면 조국의 수호신으로 가버릴 학도⁵⁰⁾이다.”라는 문장에서 잘 나타난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제기되는 민족 국가의 형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고려하면, 당시의 지식인 학생들에게 민족이 가장 중

46) 슈메이커, 앞의 책, p.224.

47) 위의 책, pp.411-413.

48) 위의 책, p.411.

49) 안도현·변영학, 앞의 글, pp.15-18.

50) 결의문의 ‘괴뢰’라는 표현은 당시 학생들의 반공주의적 성향을 반영(김일수, “2·28민주운동 결의문과 구호를 통해 본 2·28민주운동의 의의와 지향”, 『대구경북연구』, 제20권 제2호, 대구경북연구원, 2021, p.126)하는 동시에, 2·28의 보수적 속성을 두드러지게 한다. 그러나 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것에 반하는 측면, 즉 쿠바혁명이나 한국전쟁, 남북통일에 대한 참여 학생들의 탈냉전적 인식과 혁신적인 견해(안도현·변영학, 앞의 글, pp.22-24)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요한 가치로 다가온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이후 이러한 민족애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민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자주운동(미군이 주둔하고 있던 학교 건물에 대한 반환 요구, 불평등한 한미경제협정에 대한 비판 등)과 분단의 해소를 통한 민족국가의 완성을 추구하는 통일운동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다.⁵¹⁾

IV. 민주주의의 맥락

1. 보수주의와 민주주의

여기에서는 민주주의의 맥락에서 2·28정신의 보수주의론을 논의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보수주의와 민주주의의 상호관계성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대구 보수를 포함한 한국의 보수가 민주주의적 권리 및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에 대한 선호도가 다소 약한 편이고, 한국의 보수와 민주주의의 상호성 또한 그리 높지 않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보수의 일부에서는 이미 역사적인 가치를 공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5·18민주화운동(이하 5·18) 등 주요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부정하는 듯한 견해를 수시로 제기하고 있다.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는 2023년 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들의 제주 4·3사건과 5·18에 대한 일련의 주장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신을 민주주의자와 다른 것으로 호명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그리하여 이제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무의미의 전형적인 사례가 되어버리는 동안’,⁵²⁾ 오히려 한국의 보수는 반공주의와 성장주의, 지역주의 등 비민주적 성향의 이념에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한국 보수의 핵심적인 이념은 한국의 보수적 정치권력의 통치이념과 상당 부분 겹치는 ‘반공주의(안보상업주의)’와 ‘성장주의’, ‘권위주의(가부장주의)’⁵³⁾ 등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보수주의와 민주주의가 상반되어야 할 이론적인 근거는 그다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보수주의는 초기 민주주의 건설기의 핵심 과제인 일반민주주의와는 밀접하게

51) 김태일, 앞의 글, pp.243-245.

52) 장-뤽 낭시, “유한하고 무한한 민주주의”, 알랭 바디우 외 지음, 김상운 외 옮김, 『민주주의는 죽었는가?: 새로운 논쟁을 위하여』, 서울: 난장, 2010, p.107.

53) 홍덕률, “한국적 보수’의 위기: 구조적 요인과 전망”, 『황해문화』, 통권38호, 새얼문화재단, 2003, pp. 50-52.

연관된다. 일반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체권리를 의미한다. 이것은 주로 민주주의 초기 단계의 핵심적인 과제로 제기되는 시민참여의 제도화와 대의제, 법의 지배, 선거제도-다수제, 일정 수준의 자유와 평등, 교육⁵⁴⁾ 등 민주주의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보편적 기초라는 의미에서 ‘일반적’이다.

한편 이것은 ‘불확실성의 제도화’(Adam Przeworski)라고 규정할 수 있는 ‘절차적 민주주의’와도 그 의미가 호환된다. 이것은 권력 경쟁이나 정책 결정 과정의 형식과 절차의 민주성에 초점을 두면서, 사회적 기회에 대한 평등한 접근과 참여 등 제도적 평등성의 정착에 주목하는 민주주의 개념이다. 즉 ‘기회(opportunity)의 평등’을 기반으로 구성원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발언하고 결집하기 위한 법적·절차적 차원의 기본적인 제도와 장치, 예를 들면 보통선거제와 집회와 결사, 언론과 사상의 자유 등을 강조하는 제도적 수준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⁵⁵⁾

보수주의와 민주주의의 상호 친화성은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사실 19세기 보수주의는 성향상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질서보다는 왕정과 같은 신분적 계급의 통치를 좀 더 선호했다. 그러나 특히 일반민주주의 단계에서 현실적·절충적 성향의 보수주의는 민주주의의 역기능을 견제하는 가운데, 당시 사회의 광범위한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사회와 국가의 민주화 경향을 점진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⁵⁶⁾

살펴보면, 근대 보수주의 이론의 기반을 마련한 버크(Edmund Burke)는 왕권에 대한 의회의 우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법치와 의회의 정당성과 권위를 통하여, ‘절제되지 않은 다수의 욕망’에 대응하고자 했다.⁵⁷⁾ 이를테면 근대 초기의 민주화 흐름에 대하여 버크는 신분적 전통을 제한하고 법치와 의회주의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은 ‘진보적’이었지만, 동시에 의회의 임무를 ‘자율적으로 통치할 능력이 부재한 대중들이 평등을 명분으로 전체사회에 강요하는 편견과 오류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만큼은 ‘보수적’이었다.⁵⁸⁾

토크빌의 견해도 이와 유사했다. 그는 평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민주주의가 ‘다수의 폭정’을 발생시킬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방어막으로서 귀족주의를 주장했다.

54) Sargent, Lyman Tower, *Contemporary Political Ideologies: A Comparative Analysis*,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0, pp.37-71.

55) 박찬표, “헌법에 기대기: 민주주의에 대한 두려움 혹은 실망”, 『한국정당학회보』, 제5권 제1호, 한국정당학회, 2006, pp.76-77.

56) 폴 슈메이커, 앞의 책, p.553.

57) 이나미, 『한국의 보수와 수구: 이념과 역사』, 서울: 지성사, 2011, p.31.

58) 박종현, 『케인즈 & 하이에크: 시장경제를 위한 진실게임』, 파주: 김영사, 2014, p.35.

그렇지만 그는 민주주의를 봉건적 사회구조와 특권을 전복시키는 저항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이상에 공화주의적 제도를 결합하여, 민주주의의 역기능을 제어하고 사회적 공동선을 복돋우기 위한 대중의 ‘마음의 습속’(habits of the heart)을 강조했다.⁵⁹⁾

한편 19세기 ‘토리 민주주의’(Tory Democracy)는 보수주의와 민주주의가 공조한 현실 정치의 실증적인 사례이다. 자유당이라고 일컬어지는 휘그당에 대응하여, 보수당을 자처한 토리당의 지도자 디즈레일리(Benjamin Disraeli)는 귀족계급과 노동자계급의 연합을 형성하여 당시의 정국을 주도했다. 그는 남성 노동자의 투표권 부여와 파업권 인정 등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이들에게 영국 사회의 전통적인 질서인 군주제와 귀족제, 국교회에 대한 인정을 유도했다. 이를 통하여 디즈레일리는 보수적인 귀족과 잠재적 혁명 세력인 노동자계급 간의 정치연합으로 휘그당의 지지기반인 상업적 중산계급에 대한 문화적 보수주의의 반감을 흡수하여, 보수주의의 정치적 기반을 더욱 확대했다.⁶⁰⁾

이처럼 보수주의와 민주주의는 서로 반목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상황, 특히 초기 민주주의의 건설기에서는 더욱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개념이다. 즉 보수주의는 인민민주주의나 젠더민주주의 등의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민주주의와는 상시적으로 갈등하지만, 그렇다고 민주주의 일반과 대립하는 이념은 아니다. 오히려 보수주의는 법치나 의회와 같은 권위 있는 제도를 통하여, 대중의 무질서한 욕망을 관리하고 사회의 공적 질서를 유지하려는 ‘보수주의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이다. 이는 ‘보수주의와 민주주의는 상호보완적인 개념으로서, 양자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상호의 가치를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ChatGPT의 답변과도 일치한다.

2. 2·28정신과 민주주의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의 보수 특히 대구 보수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선호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 이러한 성향은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인 5·18에 대한 평가에도 반영된다. 2018년에 실시된 ‘5·18 인식조사’(5·18기념재단 2018)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은 5·18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국가폭력에 대한 정의로운 저항’,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역사’ 등)가 가장 낮은 지역(76.3점)이다. 또한 민주화와 인권 신장에 대한

59) 테렌스 볼 외, 앞의 책, pp.77-80.

60) 위의 책, pp.202-203.

5·18의 기여도를 가장 낮게 평가하는 지역(69.1)이자, 5·18의 가치 훼손 및 비방, 왜곡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은 지역(72.8점)이기도 하다.⁶¹⁾

이러한 상황에서, 2·28정신은 대구의 보수에게 보수주의와 민주주의의 상관성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한다. 현재 2·28은 ‘정부수립 이후 발생한 최초의 민주화운동’이자, 4월 의거의 시작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것은 1950년대 이승만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대외 의존적인 분단체제·경제체제가 확립되면서 초기 단계 민주주의적 과제의 실현이 연이어 지체되던 상황에서, 일반민주주의의 실현을 집단적으로 제기한 한국 정치사의 중요한 사건이다. 즉 이것은 당시 한국 사회를 둘러싼 정치·사회적인 다양한 제한요인이 민주주의의 성장을 저해하는 가운데, 대구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일반민주주의적인 권리를 중심으로 당시 구성원들의 ‘정치적 일반의지(general will)’를 자발적·적극적으로 대변한 민주화운동(채장수 2021, 40)이다.

이처럼 2·28은 일반민주주의적 과제를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의 실현을 주창했던 그 자체로서 민주화운동이다. 즉 당시 참여자의 회고에서처럼, 2·28은 ‘여당의, 여당을 위한, 여당의 전매특허적인 민주정치’⁶²⁾를 주도한 이승만 정권의 반민주적 통치에 저항하여 ‘싸은 냈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한 민주주의’⁶³⁾의 진전을 요구한 분명한 성격의 민주화운동이다.

여기서 일반민주주의 단계에서는 보수주의와 민주주의의 친화적·보완적 상호관계가 더욱 공고하게 형성된다는 상술한 논의를 고려하면, 2·28의 민주주의는 초기 국민국가 건설기 보수주의의 대표적인 가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근대적 국민국가를 지속시킬 새롭고 안정적인 질서로 정착되어야 할 일반민주주의적 과제의 실현을 주도한 민주화운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28은 냉전과 분단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자유대한’을 세운 국부(國父)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저항운동이기에 보수의 역사로 적합하지 않다는 일부 보수의 주장은 그다지 타당하지 않다.

한편 보수주의와 특히 초기 민주주의의 상호 친화성이라는 관점에서, ‘쉴 권리’의 보수주의적 의미는 두드러진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라는 구호를 통해서 1960년대 압축적 성장의 어두운 그림자를 폭로한 청년 노동자 전태일의 죽음(1970년)으로 표출된 쉴 권리에 대한 요구는 2·28의 주요한 주장이기도 했다. 결의문에

61) 5·18기념재단, 『5·18 인식조사 종합 결과 보고서』, 서울: 나우엔퓨처, 2018.

62) 이대우, 앞의 글, p.225.

63) 박재철, “역사의 전환점: 2·28을 중심으로”, 2·28민주의거 40주년 특별기념사업회 편, 『2·28민주운동사-II(자료편)』, 2000, p.271.

서도 “우리는 일주일 동안 하루의 휴일을 쉴 권리가 있다. 이것은 역지의 말도 아니고, 꾸민 말도 아니고, 인간이 근세 몇 천년동안 쫓 계속해서 내려온 관습이요, 인간이 생존해 나가기 위한 현명한 조치이다.”라는 표현으로 누차 제기된 쉴 권리는 민주주의의 맥락에서 2·28정신에 함축된 보수주의의 주요한 가치로 해석할 수 있다. 생존권적 기본권인 쉴 권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적 기회의 보장⁶⁴⁾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초기 민주주의 건설기의 주요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민주주의는 2·28정신에 구현된 실제적이고 보편적인 보수주의의 중요한 가치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갈등적 상호관계를 지속함으로써, 대구 보수 스스로 자신의 보수주의성을 약화하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다. 대구 보수의 이념적인 정상화의 시작점은 대구의 역사적 자산인 2·28에 구현된 민주적 정체성에 대한 정립이기 때문이다.

V. 결론

최근 지역 언론사의 취재를 통하여, 2·28을 자세하게 다룬 영국 <The Times>의 기사(1960년 3월 15일)가 발견되었다. 이 기사는 일제강점기 저항의 중심지이자 독립의 전통을 가진 대구가 자유당의 독재에 대한 저항의 역사를 기록하기 원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적어도 반공과 지역주의를 두 축으로 삼은 소위 ‘대구 이데올로기’가 탄생하기 이전까지, 대구는 당시 한국 사회의 근대적 가치를 주도한 지역이었다.

한편 대구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협소한 농경지로 인한 대지주 계층의 미형성-자영농 등 자립적 경제주체들의 초기 형성, 그리고 경성 및 평양과 함께 식민지 시기 신교육기관의 운영으로 젊은 지식인 계층의 성장,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점령지가 아니었기에 전후 부역자 숙청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던 상황 등의 요인이 거론되고 있다.⁶⁵⁾ 한편 이것은 대구의 역사적 자산인 2·28이 대구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토대이기도 할 것이다.

지금까지 본 연구는 2·28정신을 대구 보수의 이념적 자산이라고 규정하면서, 이것의 의미를 보수이념적으로 구성하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4) 안도현, 앞의 글, p.49.

65) 노현웅, 2017, “좌파도시 대구는 어떻게 반공과 지역주의의 첨병이 되었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8365.html(검색일: 2023.03.25).

II장에서는 2·28의 보수이념적 의미론의 구성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논의로서, 보수주의의 신념윤리를 실체적·보편적 보수주의라고 설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준거 개념과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 보수의 태생적 조건에서 기인하는 대구 보수의 수구적 경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이후 대구 보수의 보수 이념적 정상화를 위한 지표로서, 2·28정신의 보수이념적 의미론의 내용을 구성했다. III장에서는 전통사상의 맥락에서 2·28정신의 보수주의를 설정했다. 먼저 전통적 가치와의 단절로 인한 이념적 빈곤이라는 한국 보수에 각인된 역설적 상황을 지적했다. 이후 전통사상의 핵심인 유학의 올곧음과 나아감 그리고 민족공동체에 기반하여 국민국가를 형성한 한국 보수의 규정적인 성향인 민족애를 중심으로 2·28정신과 전통사상의 연관성을 논의했다. IV장에서는 민주주의의 맥락에서 2·28정신의 보수주의를 설정했다. 먼저 보수주의와 민주주의의 상호관계성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양자는 특히 초기 민주주의의 건설기에서 더욱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개념임을 설명했다. 이후 대중의 무질서한 욕망을 관리하고 사회의 공적 질서를 유지하려는 ‘보수주의적 민주주의’와 초기 민주주의의 과제로서 일반민주주의의 실현을 주창한 2·28 사이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본 연구는 근대적 가치의 실현을 선도적으로 주창했던 2·28이 ‘의미 있는 역사’로서의 무게가 점차 소진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제기하겠다. 사실 대구 보수는 전통과 질서를 기본으로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보수이념과 스스로 결별하여 결국 보수주의의 전반적인 위기를 자초한 한국의 보수⁶⁶⁾에 대한 질책에서 마냥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대구의 보수는 이념적인 정상화의 길라잡이가 되어야 할 2·28정신을 충실하게 성찰하지는 못하고 있다.

2·28의 역사는 과거의 사실과 현재의 해석 사이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비로소 현재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제한된 기억과 관행적 기념으로 2·28의 역사가 화석화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2·28정신의 현재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5·18기념재단, 『5·18 인식조사 종합 결과 보고서』, 서울: 나우엔퓨처, 2018.
강정인, “전환기에 선 남한의 보수주의”, 『경제와 사회』, 통권37호, 비판사회학회, 1998.

66) 박효중, “보수주의자들이 칠거지악: 지킬 것은 지키고 바꿀 것은 바꾸었는가”, 박효중 외 지음, 『한국의 보수를 논하다』, 서울: 바오출판사, 2005.

- 경북정체성포럼, 『경북의 혼, 한국정신의 창: 총론편』, 경상북도·한국국학진흥원, 2014.
- 김장태, 『유학 사상과 유교 문화』,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1995.
- 김용호, “2·28민주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 『2·28연구원 개원 기념 2·28포럼』, 2·28민주운동 기념사업회, 2019.
- 김일수, “2·28민주운동 결의문과 구호를 통해 본 2·28민주운동의 의의와 지향”, 『대구경북연구』, 제20권 제2호, 대구경북연구원, 2021.
- 김태일, “4월 혁명의 출발: 2·28대구민주운동의 정치사적 의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4권 제2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3.
- 노르베르토 보비오 지음, 박순열 옮김, 『제3의 길은 가능한가: 좌파냐 우파냐』, 서울: 새물결, 1998.
- 노현웅, 2017, “좌파도시 대구는 어떻게 반공과 지역주의의 침병이 되었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8365.html(검색일: 2023.03.25).
- 레온 P. 바라다트 지음, 신복룡 외 옮김, 『현대정치사상』, 서울: 평민사, 1998.
- 막스 베버 지음, 이상률 옮김, 『직업으로서의 정치』(E-Book), 서울: 문예출판사, 2017.
- 박재철, “역사의 전환점: 2·28을 중심으로”, 2·28민주의거 40주년 특별기념사업회 편, 『2·28민주운동사 -Ⅱ(자료편)』, 2000.
- 박종현, 『케인즈 & 하이에크: 시장경제를 위한 진실게임』, 파주: 김영사, 2014.
- 박찬표, “헌법에 기대기: 민주주의에 대한 두려움 혹은 실망”, 『한국정당학회보』, 제5권 제1호, 한국정당학회, 2006.
- 박효중, “보수주의자들이 칠거지악: 지키기 바랄 것은 바꾸었는가”, 박효중 외 지음, 『한국의 보수를論하다』, 서울: 바오출판사, 2005.
- C. 라이트 밀스 지음, 박노영 외 옮김, 『현대사회와 정치구조』, 파주: 돌베개, 1981.
- 안도현, “2·28민주운동과 설 권리: 결의문에 담긴 ‘일요일 등교’ 거부에 대한 재해석”, 『대구경북연구』, 제20권 제1호, 대구경북연구원, 2021.
- 안도현·변영학, “2·28민주운동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의 집단정체성 연구: 2·28민주운동 직후 발행된 교우지를 중심으로”, 『대구경북연구』, 제21권 제3호, 대구경북연구원, 2022.
- 오석원, 『한국 도학과의 의리사상』,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 유명철, “2·28민주운동, 3·15 1차 마산의거와 4·11-13 2차 마산의거, 4·19혁명: 그 ‘연관성’에 대한 내용 지도의 필요성”, 『사회과교육』, 제57권 제1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18.
- 윤순갑, “2·28민주운동과 대구정체성”, 『대한정치학회보』, 제26권 제4호, 대한정치학회, 2018.
- 이나미, 『한국의 보수와 수구: 이념과 역사』, 서울: 지성사, 2011.
- 이대우, “來日을 위한 鬪爭”, 2·28민주의거 40주년 특별기념사업회 편, 『2·28민주운동사-Ⅱ(자료편)』, 2000.
- 이상익, 『유가 사회철학 연구』, 서울: 심산출판사, 2001.
- 임명목, “廬·文서 이재명·이준석으로... 팬덤정치 이렇게 민주정 파괴한다”, 202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8993>(검색일: 2023.03.20).
- 장-뤽 낭시, “유한하고 무한한 민주주의”, 알랭 바디우 외 지음, 김상운 외 옮김, 『민주주의는 죽었는가?: 새로운 논쟁을 위하여』, 서울: 난장, 2010.
- 전재호, 『반동적 근대주의자 박정희』, 서울: 책세상, 2006.
- 정재요, “2·28 민주운동 서사의 교육적 의미에 관한 고찰: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중심으로”, 『대한정치

- 학회보』, 제30권 제1호, 대한정치학회, 2022.
- 조희연, “색깔론의 하나의 왜곡과 하나의 전제”, 2002, <http://dnsm.skhu.ac.kr>(검색일: 2003.04.28).
- 차기벽, 『민족주의원론』, 서울: 한길사, 1990.
- 채장수, “2·28 대구민주운동의 의미론: ‘민주화’의 성격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제11권 제3호, 대한정치학회, 2004.
- 채장수, “한국 보수진영의 위기와 보수주의의 특성”, 『정치·정보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정치정보학회, 2018.
- 채장수, “‘2·28 결의문’의 민주주의적 독해”, 『대구경북연구』, 제20권 제1호, 대구경북연구원, 2021.
- 천관율, “태극기 집회의 비결 ‘애국의 삼각형’”, 『시사IN』, 통권498호, 2017.
- 최병덕, “전통사상적 관점에서 본 2·28민주운동 결의문의 정신과 의미”, 『대구경북연구』, 제20권 1호, 대구경북연구원, 2021.
- 최종옥, “괴델의 시대-과연 한국에 보수주의는 있는가”, 최종옥 외 저, 『보수주의자들』, 서울: 삼인, 1997.
- 최종희, 『대구경북의 사회학: 대구경북 사람들의 마음의 습속 연구』, 파주: 오월의봄, 2020.
- 테렌스 볼 외 지음, 정승현 외 옮김, 『현대 정치사상의 파노라마』, 파주: 아카넷, 2022.
- 폴 슈메이커 지음, 조효제 옮김, 『진보와 보수의 12가지 이념: 다원적 공공 정치를 위한 철학』, 서울: 후마니타스, 2010.
-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한국의 정치 양극화 현황과 제도적 대안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KIPA DATA BRIEF』, 통권16호, 2023.
- 한홍구, 『대한민국史』, 서울: 한겨레신문사, 2003.
- 홍덕률, “‘한국적 보수’의 위기: 구조적 요인과 전망”, 『황해문화』, 통권38호, 새얼문화재단, 2003.
- Hayek, Friedrich August, “Why I Am Not a Conservative”, *The Constitution of Libert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0.
- Huntington, Samuel P., “Conservatism as an Ideolog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51 no. 2., 1957.
- Klemperer, Klemens, “Conservatism”, *Marxism, Communism and Western Society: A Comparative Encyclopedia*, New York: Herder and Herder, vol. 2., 1972.
- Sargent, Lyman Tower, *Contemporary Political Ideologies: A Comparative Analysis*,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90.
- Sigler, Jay A., “Introduction”, *The Conservative Tradition in American Thought*, New York: Capricorn Books, 1969.
- <https://namu.wiki/w/팬덤정치>(검색일: 2023.03.20.).

【 Abstract 】

The Conservative Semantics of ‘the spirit of 2·28’

Chae JangSoo

At least until the Park Chung-hee regime settled down, Daegu was a region that led the modern values of Korean society. This study defined the spirit of 2·28 as an ideological asset of Daegu conservative and defined it in a conservative way.

In Chapter II, the original meaning of conservatism was conceptualized as 'substantial and universal conservatism', and the reactionary tendencies of Daegu conservative were critically reviewed through comparison with this. Then, the conservative semantics of the spirit of 2·28 were constructed.

In Chapter III, the conservatism of the spirit of 2·28 was established in the context of traditional thought. Here, while pointing out the paradoxical situation of the ideological poverty inherent in Korean conservative, the relevance between the spirit of 2·28 and traditional thought was discussed, focusing on ‘righteousness’, ‘progressiveness’, and ‘commitment to nation.’

In Chapter IV, ‘conservatism of the spirit of 2·28’ was established in the context of democracy. Here, based o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conservatism and democracy, the specific relationship between 2·28 which advocated the realization of general democracy, and ‘conservative democracy’ was examined.

In the conclusion, this study raised a critical view on the reality that 2·28, which played a leading role in realizing modern values in the early period of the nation-state, was exhausting its continuity as a ‘meaningful history.’

Key Words :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the Spirit of 2·28, Daegu Conservative, Conservatism, Reactionism

• 논문투고일 : 2023년 4월 17일 / 논문심사완료일 : 2023년 5월 15일 / 게재확정일 : 2023년 5월 15일

